

'텅 빈' 정부 곳간, 순자금조달 역대 최대...가계 여윳돈은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급을 담은 가계의 여윳돈이 늘어난 반면 경기 대응 차원에서 재정 지출을 늘린 정부의 곳간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 빈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0년 2분기중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2분기 일반정부의 순자금조달 규모는 37조9000억원으로 1년 전(2000억원)보다 큰 폭 확대됐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9년 1분기 이후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자금순환은 각 주체가 금융거래(자금흐름)를 파악한 것으로 국가 경제 전체의 재무제표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자금순환에서 각 주체가 예금이나 보험, 연금, 펀드, 주식 등으로 굴린 돈은 자금운용액으로, 차입금 등 빌린 돈은 자금조달액으로 표시된다.

자금운용액이 조달액보다 더 많으면 순자금운용, 반대면 순자금조달로 기록된다.

정부의 순자금조달 규모가 커진건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발행 등을 통해 정

정부 순자금조달 37.9조억원으로 큰 폭 확대 가계 순자금운용 64조억원으로 40조원 급증

부 지출을 대거 늘린 영향이다.

2분기 정부의 최종소비지출은 8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83조4000억원)보다 5조9000억원 증가했다.

경상이전지출과 보조금도 같은 기간 97조6000억원에서 99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반면 중앙정부의 총수입은 2분기 99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117조9000억원)대비 18조5000억원 둔화했다.

이에 일반정부의 자금운용 규모는 10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13조6000억원)에 비해 상당폭 쪼그라들었다.

가계의 여윳돈은 늘어났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64조원으로 1년 전(24조원)보다 40조원 급증했다.

'빚투(빚내 주식투자) 열풍', '영풍(영혼까지 끌어모아 돈 마련)' 부동산 투자 등으로 자금

조달 규모가 지난해 2분기 20조7000억원에서 올해 2분기 46조1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으나, 자금운용액이 더 큰 폭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0조1000억원에 달한 영향이다.

가계의 금융기관 예치금이 지난해 2분기 26조4000억원에서 올해 2분기 49조8000원으로 크게 늘고, 지분증권·투자펀드 규모가 2조8000억원에서 21조30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자금운용액 확대에 영향을 줬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가계소득이 늘고, 신규주택 구매 둔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가계 순자금운용이 1년 전보다 확대됐다"며 "대기 자금 성격의 단기 저축성 예금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가계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430만1000원으로 전년동기(403만



8000원)보다 다소 늘었다.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운전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자금난에 시달린 기업(비금융법인)의 순자금조달 규모는 29조1000억원으로 1년

전(15조3000억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1분기(34조8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김민정기자

정부 "가을배추 수급 안정적...고랭지배추 절반값 전망"

"재배 면적 평년대비 2% ↑ ...고랭지배추 3배 이상 생산"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이달 중순부터 출하가 시작돼 11~12월 김장철에 대폭 출하가 늘어가는 가을배추는 재배면적 증가와 최근 기상 호조로 안정적 수급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장용 배추는 지난 8~9월 심은 가을배추로 재배면적이 평년대비 2% 증가했다. 구체적인 재배면적은 1만 2783ha로, 1년 전과 비교하면 16% 늘어났다. 이에 따른 생산량은 123만9000t으로 평년보다 4% 줄었지만 전년보다는 17% 증가한 수준이다.

7~10월 출하되는 고랭지배추는 여름철

기온이 낮은 강원도 산간지역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지 않지만 가을배추는 전국적으로 재배되기 때문에 생산량도 3배 이상 많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순 이후 가을배추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성숙하기인 11~12월에는 고랭지 배추의 절반 이하로 가격이 형성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랭지배추 가격은 지난달 하순 포기당 8124원을 고점으로 추서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었으며 이달 들어 6000원대에 머물러 있다.

김미희기자



이번에는 9만5000명...제주, 한글날 연휴 다시 방역긴장

9~11일 호텔콘도·야영장·유원시설·휴양펜션 '방역수칙' 점검



'추강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방역을 무사히 넘긴 관광도시 제주도가 한글날 연휴가 다가오면서 다시 긴장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관광협회의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은 9만5000여명이다.

이는 지난해 13만7457명보다 약 30.9% 감소한 수치이지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도가 다시 집중 방역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는 오는 18일까지를 추석연휴 특별방역 위험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도와 행정시, 관광공사, 관광협회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50여명의 인원을 투입해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호텔콘도 418곳, 야영장 43곳, 유원시설 74곳, 휴양펜션 117곳 등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점검은 ▲방문객 마스크 착용 및 열 감지체크 ▲방역관리자 지정 ▲주기적 방역 및 이행수칙 준수 ▲종사자 위생관리 ▲생활속 거리두기 필요성 및 실천행동 요령 안내 ▲2m 거리두기 이행 여부 등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제주공항 1층 도착장 입구 2곳과 제주항 여객터미널, 함덕해변 등 8대 핵심관광클러스터에서 관광객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캠페인도 한다.

김재웅 도 관광국장은 "한글날 연휴기간에도 안전한 제주관광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빅히트 청약고객 대상 이벤트 실시

오는 23일까지 금융상품 가입시 상품권 지급

한국투자증권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청약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상품권 최대 3만원권과 추첨을 통해 경품 지급하는 금융상품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벤트는 지난 5~6일 진행된 빅히트엔터

먼트 공모주에 청약한 한국투자증권 영업점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청약 환불일인 8일부터 23일까지 한국투자증권에서 판매하는 펀드·랩어카운트·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하면 금액에 따라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펀드·랩·ELS 가입 고객은 3000만원 이상 가입시 상품권 1만원, 5000만원 이상 가입시 2만원, 1억원 이상 가입시 3만원을 지급한다. 또 가입 이벤트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애플 맥북 프로와 다이스 에어랩을 총 6명에게 증정한다. 오유나기자

9월 수입차 2만1839대 신규등록

전년보다 8.1% 상승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지난 9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대수가 2만1839대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직전 달인 8월 2만1894대보다 0.3% 감소, 지난해 9월 2만204대보다 8.1%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1~9월 누적대수는 19만1747대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 16만7093대보다 14.8% 증가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임한규 부회장은 "9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은 공급물량이 부족했던 브랜드가 있는 반면 물량확보 및 신차효과가 있는 곳이 혼재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잘 팔린 모델은 메르세데스-벤츠 E300 4MATIC(680대)가 차지했다. 메르세데스-벤츠 A220 세단(505대), 아우디 A6 45 TFSI(489대)가 뒤를 이었다.

브랜드별 등록대수는 메르세데스-벤츠가 5958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BMW(5275대), 아우디(2528대), 미니(1108대), 폭스바겐(872대), 지프(853대), 볼보(801대), 렉서스(701대), 포드(659대), 쉐보레(553대), 토요타(511대) 순이다.

이 외에도 포르세 471대, 링컨 403대, 랜드로버 368대, 혼다 244대, 푸조 235대, 캐딜락 100대, 마세라티 68대, 제우어 41대, 람보르기니 34대, 시트로엥 32대, 벤틀리 12대, 롤스로



벤츠 더 뉴 E클래스

이스 10대, 인피니티 2대 등이 판매됐다. 배기량별로는 2000cc 미만 1만4194대(65%), 2000~3000cc 미만 5963대(27.3%), 3000~4000cc 미만 1245대(5.7%), 4000cc 이상 247대(1.1%), 기타(전기차) 181대(0.8%)다.

국가별로는 유럽이 1만7813대(81.6%)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미국 2568대(11.8%), 일본 1458대(6.7%) 순이다. 연료별로는 가솔린 1만1624대(53.2%), 디젤 6416대(29.4%), 하이브리드 3618대(16.6%), 전기 181대(0.8%) 등이다.

구매유형별로는 2만1839대 중 개인구매가 1만3769대로 63%를 차지했다. 법인구매는 8070대(37%)다. 개인구매는 경기·서울에서 각 4348대·3212대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866대로 뒤를 이었다. 법인구매의 지역별 등록은 인천 3007대, 부산 1692대, 대구 1315대 순으로 집계됐다.

기동취재본부

5년 간 부동산 팔아 번 차익 352조원 달해

2018년 기준 건당 양도차익 8777만원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부동산 양도차익을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이익이 총 35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국정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양도소득 매매차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3만3000건이었던 부동산 양도건수는 2018년 85만9000건으로 26만 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도차익은 50조8811억원에서 75조3957억원으로 4년 만에 24조514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양도차익은 2014년 50조8811억원, 2015년 70조9223억원, 2016년 72조6218억원, 2017년 82조1497억원, 2018년 75조3957억원이었다.

건당 양도차익은 2014년 6108만원, 2015년 7442만원, 2016년 7954만원, 2017년 8593만원, 2018년 8777만원으로 4년 만에 2669만원이나 늘어났다.

분양권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도 급증했다.

분양권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은 2014년 5435억원에서 2018년 2조1709억원으로 무려 약 4배나 증가했다.

분양권 건당 양도차익은 2014년 1156만원에서 2018년 2856만원으로 2.5배 급증했다.

김교흥 의원은 "부동산 양도차익으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과다하게 증가했다"며 "부동산이 더 이상 불로소득 수단인 되지 않도록 다주택자 규제 등 부동산 정책을 빠르게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승호기자